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이사야 · 에베소서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2006년 단기선교와 CMTC훈련 및 언어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③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④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⑤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⑥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5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이사야 · 에베소서

예레미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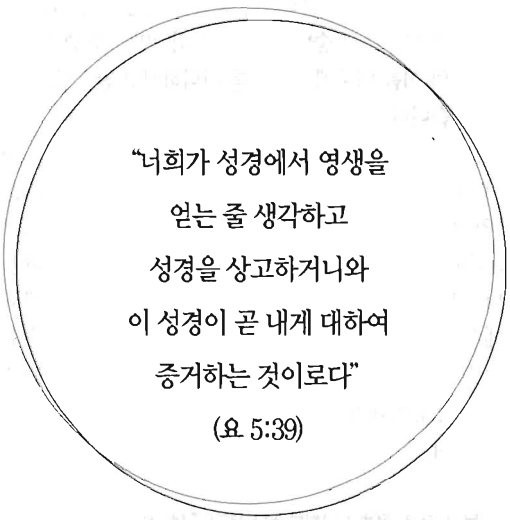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천국의 모든 관심은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주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2005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예제 5-15

이제부터는 한글이든 영어든
모든 글꼴에 한글을 넣어서 한글과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용도로
이제부터는 한글이든 영어든
모든 글꼴에 한글을 넣어서 한글과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용도로

이제부터는 한글이든 영어든
모든 글꼴에 한글을 넣어서 한글과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용도로

이제부터는 한글이든 영어든
모든 글꼴에 한글을 넣어서 한글과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용도로

이제부터는 한글이든 영어든
모든 글꼴에 한글을 넣어서 한글과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서는 한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쇠 같은 목과 놋 같은 이마로써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땅히 진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9절).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야곱의 집은 공로는 커녕 불의, 완악함,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죄악만 가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나는 여호와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 주어 광명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후에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기도 제목 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이 말씀은 여호와와 종이 당하는 수난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는 수난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수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히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욕과 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본문 7절과 9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② 고난 당하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양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5절). “내 의가 가깝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전가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세력이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흥해가 마르게 되어 있고, 구속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의 낮추심과 높이 들리심이 함께 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흠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 내셨던 그 입술은 죽음의 침묵 안에서 고요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발라 드렸던 머리는 가시관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두 눈에는 죽음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던 두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두 발은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뿜어 내던 심장은 이제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메시지가 입에서 입으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영원히 배배시키셨으며,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쏘는 것도 없으며 무덤의 승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문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3:4). 우리의 죽는 시간은 땅이 끝나고 하늘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먼저 십자가요, 그 다음에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에 방관자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14절).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이 너무 상했으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그러져서, 그의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흉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실현은 우리 주님의 삶에 눈물을 가져다줍니다. 주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학대당했으며, 생각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수염과 머리가 뜯겨졌으며, 가시관이 이마를 짓눌렀고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무 상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상하고 찢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합 1:13).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랐으며, 이 땅의 왕들은 주님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

기도 제목 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모든 위원회의 일과 일꾼들을 주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9b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거저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그 죄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구속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 값을 받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이루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보혈로써 죄인의 죄 값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언약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기도 제목 ① 심판을 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수요 예배와 영성훈련을 통해서 구역장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이어 본문 전반부에서는 구원 받을 자의 자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0-22).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참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벧후 1: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의를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금요일 회를 통해서 선포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도록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반드시 요구되는 회개,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사 40-54장).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1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초대의 대상인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3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을 통하여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사 55:2).

기도 제목 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나의 이웃과 교회 주변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사야서의 대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58-66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본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안식일 준수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움을 했습니다(3, 4절).

그들은 오직 금식이라는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수반되는 금식입니다(6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포함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요 4:24). 그러므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기도 제목 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② 주일의 모든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문은 전장 후반부에 언급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일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신들을 섬긴 영적 간음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바벨론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후에,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떠나 겸허하게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14-21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통해 하는 자는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고서 눈과 같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혹시 여러분들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자녀 등,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도록 주님을 모셔들이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기도 제목 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 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져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앞장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한 이사가 여기서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1, 2절).

그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부유층이 일반 평민들을 상대로 토색하며 횡포를 일삼은 것과 재판관들의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른 것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조차 이와 같은 죄악을 쉽사리 저지른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상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중보자, 곧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15, 16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인간의 이러한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자가 시몬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사 59:20).

기도 제목 ①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새롭게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이 온전히 복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도래하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1, 2절).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백성들은 안녕과 풍요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운 심판주로, 아니면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사 61:10).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보혈의 은혜로 살며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흑암에 거주하던 세상 만민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나아와 시온을 영화롭게 재건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21절). 이는 구속받은 자들만이 시온 성의 거민이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시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결국 신약 시대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시온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오셔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2절).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무지함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시온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기도 제목 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소서. ②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메시아는 그의 백성이 영광을 누릴 때까지 그의 사역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1절). 따라서 결국 온 세상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종 노릇하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처럼 한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산부가 되었습니다”(4,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 24).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신자들의 구속주요,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눅 1:69)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날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셨지만 과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7-10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1-14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15-19절).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총을 위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분께 도움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하게 되며, 그럴 때에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택한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계기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비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사 63:16).

기도 제목 ①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생명을 유지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장에 이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적을 무찔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날의 죄를 마침내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1-7절). 의로운 남은 자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토기장이로 묘사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8-12절). 이사야 선지자와 남은 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간구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들의 간구에는 구원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단지 인간적인 반성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사 64:8).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거룩한 주일을 기도로 온전히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1-7절). 그러나 심판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8-12절).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을 알지 못하던 이방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나라에선 선민의 개념이 달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라는 육적 혈통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양되는 거룩한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슬픔이나 죽음 등이 결코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나라를 조성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만 이 땅에 사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유업을 장차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 병든 신앙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얽매인 신앙은 천국을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사 65:17).

기도 제목 ① 하늘의 것에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②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천한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1, 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림으로써 그저 뜻없이 가축들만 도살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야말로 바로 율법을 어긴 자들이며,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3-6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7-11절). 마침내 주님이 베푸시는 평화가 예루살렘에 깃들게 되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12-24절).

본 장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왕상 8:27).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값없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 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의 언을 하늘 상급을 통해 십자가를 증거할 새 힘을 날마다 얻게 되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사 66:22).

기도 제목 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모든 새 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원숙하고 심오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에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변론이나 공박적인 내용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본서의 초점이 거짓교사나 이단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오묘한 의미와 성도의 고상한 지위 및 그 지위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알리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장은 성도의 지위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미한 내용이며(1-14절),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월성이 실현되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15-23절).

특히 오늘 1장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행 13:48).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엡 1:5).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을 십자가의 은혜를 관리하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이미 그의 초기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과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이자, 최후의 심판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사역의 일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당신과 화해케 하셨다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1-10절), 둘째 단락에서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케 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11-22절).

바울은 본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평화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인간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날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논하는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앞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의 이중적 소외와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이방인의 화해를 위하여 자신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구성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며,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 나아가 우리 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어 왕좌에 앉히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의 확신과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확고부동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엠펙 34).

기도 제목 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당회가 복음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는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과 예정, 구속, 화해 등의 교리와 함께 교회론을 다루었지만, 본장에서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장은 교리적인 원리에서 실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교리처럼 그에 부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장의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1-10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11-16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17-24절), 새로운 생활의 법칙(25-3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써 몸소 보여 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승리해야 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며 주도해 나가라는 권면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엠편 4:24).

기도 제목 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금요집회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의 내용은 비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부터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생활 및 부부 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야 하며, 그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 존재하게 되며 또 가정을 중심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전 인류에게 미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참다운 가정의 모습은 왜곡되었고, 온갖 비정상적인 가정의 양태가 인간 세계에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과 같이 또 교회가 주께 하듯, 남편과 아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22-25절). 또한 이것은 먼저 성도들 자신의 가정의 행복은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②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지자의 배경과 예언적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소개함으로써 본서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불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확신과 소명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나기 전에 곧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5절). 이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6절)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울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렘 1:8).

기도 제목 ① 사람을 두려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청지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서는 5장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투쟁을 위하여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도리(1-4절), 종과 상전의 도리(5-9절), 성도의 영적 싸움(10-20절), 그리고 끝 인사(21-2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투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될 그날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병사의 무장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께서 바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기도로서 참여할 것을 당부(18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엡 6:13)

기도 제목 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소서. ② 성탄의 진정
한 의미를 깨닫고 기념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패역한 유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언약 백성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사랑을 이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고 있는 본장은 유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전반부와(1-5절) 회개치 않고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중반부(6-10절), 그리고 회개에 대한 축복을 보장하시는 공휼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1-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공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눈과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1:18).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15).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② 우리의 이웃과 교회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은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으로 미래에 폭로될 여러 가지 죄악들에 관한 책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유다의 죄악 된 모습을 낱알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언약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회고하고 있는 전반부(1-3절)와 이스라엘 배도의 성격 및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 중반부(4-28절),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후반부(29-37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세상 힘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거하던 땅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도 자신의 능력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강한 이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논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는 비록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끊임없는 자기부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눅 9:23).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렘 2:19).

기도 제목 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암시되어 오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매우 극적으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개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전반부(1-4절)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중반부(5-18절) 그리고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후반부(19-3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셨습니다(4절). 이는 유다 백성들이 외식이 아닌 참된 마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에게 속해야 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려거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해와 달, 나무 등의 자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들을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재물이요, 명예요, 권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최대의 관심을 보이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것들의 추구는 하나님께 대한 가증한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위엣 것, 완성될 천국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골 3:1,2).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렘 4:1).

기도 제목 ① 위엣 것을 소망하고 땅엣 것을 버리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유다에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에 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으며(1-8절), 중반부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9-21절), 그리고 후반부는 심판 날의 참상에 대한 예고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22-30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범 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빛 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시 139:7, 렘 23:24).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을 은폐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굶은베를 두르고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 된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16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17절),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가야할 길을 알고 살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27절).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생명의 길과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길로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렘 6:16).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2005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 1-4장과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종교적 삶의 변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타락을 초래함으로써 도덕적 공백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없기에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열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그 도시들에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성은 범죄한 도성이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이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결국 죄가 성하여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렘 5: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6년을 위한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코스도 수

12월 구역 공과 초점

예수
그리스도

12월 12주 구역공과개요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사항
12/02	마 2:1-6	두 부류의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
12/09	마 1:18-25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12/16	눅 1:78-79	동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12/23	눅 2:1-20	기적의 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
12/30	눅 15:18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은총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길이 더 쉽고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오직 좁고 험한 믿음의 외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과 두 부류의 지혜자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

| 찬 송 |

찬송가 116장 동방 박사 세 사람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 본문 | 마태복음 2:1-6

¹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 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³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⁴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⁵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⁶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성경학자들

예루살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 / 또 _____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_____ 가 나와서 내 백성 _____ 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설교문을 참조해서 성경학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써 보세요.

1. ☐☐ 을 기억하고 있었다.
2. 어떤 ☐☐ 도 취하지 않았다.
3. 그리스도의 ☐☐☐ 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4. ☐☐☐ 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주님을 ☐☐ 했고 ☐☐ 의 동료로 여겼습니다.
6. ☐☐☐ 에 못 박아 죽였다.

한마디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따르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현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행 16:31)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먼 곳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바로 그곳에 두 부류의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_____ 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마태복음 2장 참조).

또 다른 부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_____ 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마태복음 23장 참조).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헤롯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대답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들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별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2 / _____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_____을 보고 그에게 _____하니

마태복음 2:10 /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_____하고 _____
하더라

마태복음 2:11 /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_____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동방박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들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준비한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경학자들에게 □□의 권세는 □□□의 권세보다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분명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치적인 위협을 감수하고 한밤중에 메시아를 찾는 여행을 감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할 나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외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가 성경학자들이 아닌 동방 박사들처럼 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이 있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경학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는 _____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 중 _____ 와 비슷합니다.

불신앙, 불필요한 위험, 잘못된 선민의식, 해롯의 권세와 비슷한 우리 삶의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_____ 자기 _____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5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_____ 찾으리라

※ 마태복음 7:13,14 말씀을 찾아서 써 보세요.

세상의 길은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열려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잉태!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 최근에 나를 놀라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_____일이 있었어요.

_____해결했어요.

요셉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1:19을 찾아서 써 보세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고, 이 일은 그에게 극도의 번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과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 찬 송 |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 본 문 | 마태복음 1:18-25

⁽¹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¹⁹⁾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²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²¹⁾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²⁵⁾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막 잠에 빠져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셉은 부자나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갖고 있는 의미는?

※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삼하 7:16

대상 17:14

하나님의 백성들은 700년 넘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왕으로 집권하고 있는 헤롯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윗 왕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동안 수 백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2 / _____ 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 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과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구약예언	신약성취
유다지파 출신	창 49:10	눅 3:33
동정녀 수태	사 7:14	눅 1:26-31
다윗왕권의 후계자	사 9:7	눅 1:32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이 세상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했는지 요셉의 경우와 비교해서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이 계획한 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1:20 /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_____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까지 사용하셨습니다.

※ 성경을 찾아서 써 보세요.

미 5:2 _____

눅 24 _____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계속해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 임신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0 / ...저에게 잉태된 자는 □□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마리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잉태가 죄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 마리아 잉태의 비밀

마리아의 잉태는 □□이 아니라 □□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가 아닌 □□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1 _____

3과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 찬 송 |

찬송가 108장 구주 탄생하심을

찬송가 110장 공중에는 노래

| 본 문 | 누가복음 1:78-79

⁷⁸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⁷⁹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이 그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던 상황은 축복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한 뒤 써 보세요.

※ 나에게 꼭 필요한 복된 소식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2. 나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3. 나를 위한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복된 소식을 받고,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후,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언은 천사 가브리엘의 두 차례에 걸친 방문이 있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눅 1:13-17).

누가복음 1:13 / 천사가 일러 가로되 _____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
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 이라 하라
누가복음 1:17 /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_____ 을 □□ 에게, _____ 를 의인의 □□ 에 돌아오게
하고 □□ 를 위하여 세운 _____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눅 1:31-33)

누가복음 1:31-33 /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 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_____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_____ 영원히 □□ 의 집에 □□ 노릇 하실 것
이며 그 나라가 □□ 하리라

마리아가 들은 천사의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했을 때, 그는 약속된 메시야가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자신의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돋는 해

돋는 해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누가복음 232 / 이방을 비추는 ☐ 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한복음 14-9 /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 이라. ☐
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
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 곧 세상에 와서 각 사
람에게 비취는 ☐이 있었나니

사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46

빛은 생명을 낳습니다. 빛은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곧 세상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참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는 돋는 해

돋는 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낼 빛이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사가랴의 예언

요한이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눅 1:68). 계속해서 사가랴의 예언은 이어집니다.

※ 사가랴의 예언

누가복음 1:76,77 / 이 아이여 네가 자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 □ □ □ 으로 말미암는 □ □ □ □ 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78 / 이는 우리 하나님의 □ □ □ □ 을 인함이라 이로써 □ □ □ □ 가 □ □ □ □ 로부터 □ □ □ □ 에게 임하여

사가랴는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때” 자신의 아들인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돋는 해는 □ □ □ □ □ □ □ □ □ □ 입니다.

사가랴는 이 돋는 해는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9 /

우리에게 은총으로 임한 돋는 해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소식은 “돈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과 그늘, 참 평강을 모른 채 살고 있던 죄인들에게 돈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 그런데 이 돈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돈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하소서
2. 돈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3. 돈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 원래 인간의 처지/ “죽음”

로마서 6:23 / 죄의 값은 이요

히브리서 9:27 / 한 번 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 바뀌진 인간의 처지/ “새 생명”

요한복음 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는 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에서 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는 살아나리라.

※ 죽음에서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

마가복음 5장 의 딸

요한복음 11장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돈는 해

돈는 해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평강의 길을 모르던 자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참 평강을 얻었습니다.

※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6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 참 평강을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6:33

4과 기적의 밤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

| 찬 송 |

찬송가 124장 한 밤에 양을 치는 자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본 문 | 누가복음 2:1-20

^㉑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㉒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㉓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㉔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㉕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㉖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눅 2:1).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눅 2:4).

※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의 밤을 이루는데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미 5:2)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삭이 된 몸으로 험한 지역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말구유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적의 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 써 보세요.

갈라디아서 44-6 /

요한복음 1:13 /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천국의 모든 관심은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천국의 모든 관심은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 크리스마스 시즌인 현재에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 크리스마스를 위한 나의 특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밤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렸습니다. 특별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드라마를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기적의 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천 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나시기 이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18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창세기 12:1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의 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맞이하였습니다

※ 가브리엘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과 관계있는 성구를 연결하세요.

목자들 ·	· 마태복음 1:20
요셉 ·	· 누가복음 2:10,11
마리아 ·	· 누가복음 1:13
사가랴 ·	· 누가복음 1:30

이 기적의 밤에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나타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눅 2:14). 하나님은 기적의 밤을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의 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였습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세상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격했고 그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2

※기적의 밤을 위한 나의 특별한 준비를 써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밤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깨달아 온전히 믿게 하소서
2.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목자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15 /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가 서로 말하되 이제 □□□□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하고

※하나님은 목자들을 이 기적의 밤의 목격자로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0 /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_____
인하여 _____ 돌아가니라

성경학자와 동방박사들

세상의 최고 성경학자들은 기적의 밤에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다음의 글에 언급된 “그들”은 누구입니까? ()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집을 뒤에 남겨둔 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적의 밤은 참으로 초라하였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찬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0-11 /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_____

5과 내가 범 죄하였사오니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 찬 송 |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누가복음 15: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끄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바 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애굽왕 바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9:27 / _____ 여호와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자마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다시 범접합니다.

출애굽기 9:34 /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_____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처럼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종말은 비참하였습니다.

발 람

하나님의 선자 발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민수기 22:34 / _____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발람은 길을 막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진실
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
습니다.

유다서 1:11 / _____

베드로후서 2:15 / _____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 / _____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요한일서 19 / 만일 우리가 우리 를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를 모든 에서 우리를 하실 것이
요

회개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죄악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회개치 않는 심령이 어떠한지에 대해 많은 예를 보여 줍니다.

아 간

야간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20 /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_____ 여차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전리품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과 비슷한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8:13/ _____

사 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24 / _____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
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26:21 / _____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 그의 고백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유 다

열 두 제자중 한 명인 가롯유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4 /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_____ 하나...

가롯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회개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18,19 /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_____
_____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
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가롯유다와 같은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오만한 젊은이에서 겸손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다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8 / _____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단지 입술로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 /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_____
_____ 하였느니라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路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라, 오라, 지친 자여 집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애타게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을 돌아보며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회개하며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 2006년에 힘써야 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묵상한 뒤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매순간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 간절한 기도 |

1. 2005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케 하소서.
2. 진실로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소서.
3. 2006년,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기적의 밤 (누가복음 2:1-20)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늘의 모든 관심도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주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드라마를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1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4절). 이 때 그와 정혼한 마리아도 동행했는데 그녀는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5절). 베들레헴이라는 이 특별한 장소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켰습니다(미 5:2). 로마 정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의 밤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약혼녀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대부분 언덕이 많았고,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믿음이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밤을 준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밤을 베푸신 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들에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0-11절). 가브리엘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사가랴, 마리아, 요셉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룻은 보아스를 만났으며, 야곱의 아내 라헬은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의 밤에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나타난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14절). 천사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기적의 밤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목자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15절).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16-20절). 하나님은 목자들을 이 기적의 밤의 목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밤을 이루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하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물 곳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호구조사 때문에 여관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마구간에서라도 숨을 돌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막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신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4-6).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이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요 1:13).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창 22:18).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여정도 무척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조용히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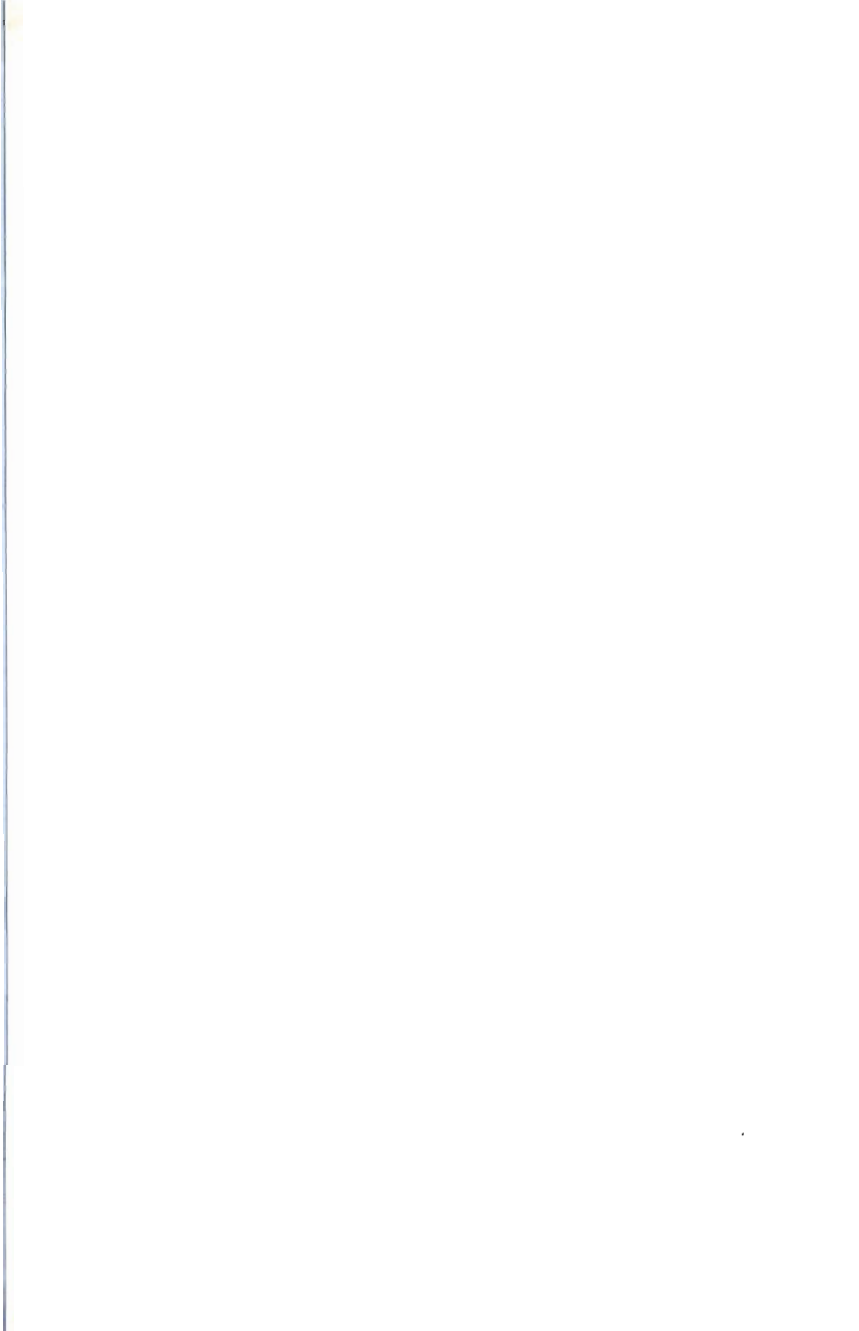
성경학자와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세상의 최고 성경학자들은 자신들의 침상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집을 뒤에 남겨둔 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적의 밤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0-11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메시아에게 비단옷을 입혀 향기로운 보좌에 눕히기는커녕 강보에 싸서 냄새나는 말구유에 눕혀 놓았습니다(7절).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주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마구간 동물 곁에 눕혀 놓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세상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격했고 그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의 밤을 축하하는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반갑게 맞아들이셨습니까?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12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이창수(1-7일), 황진섭(8-15일), 이정훈(16-23일), 김태석(24-31일)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